

## 무형유산 보호와 웰빙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관리 방안

- 콜롬비아 아마조니아 마타벤 숲의 피아로아 토착민과 에트놀라노 재단 -

**카를리나 베르무데즈**

에트놀라노 재단

콜롬비아 오리노키아(Orinoquia)와 아마존 지역의 토착민 집단과 30여 년 이상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무형유산(ICH)은 그 자체로 결과가 아니라, 공동체의 웰빙은 물론 문화 및 영토 보전에 기여하는 촉매제이자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덕분에, 우리는 NGO로서 우리가 할 역할이 사람들의 웰빙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문화유산을 수반하는 공동체의 과정들을 지원하고 동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할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분명해졌다. 본고에서는 우리가 콜롬비아 아마조니아 마타벤 숲에 사는 피아로아(Piaroa) 토착민과 겪은 경험에 집중하여 NGO로서 우리의 역할과 무형유산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음의 세 가지 방법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 무형유산 연구 지원, 2) 다리 잇기, 3) 피아로아족의 자체 교육 프로세스 함께하기의 이 세 가지 아이디어들은 글로벌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최근 경험한 생생한 예시로서 증거와 함께 아래에서 설명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 외에, 본고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등장한 일반적인 고찰과 향후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NGO로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팬데믹 이후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1) 지역 무형유산 연구 지원

지역 무형유산연구 지원은 지난해 영국 문화원의 후원을 받아 에트놀라노 재단이 운영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문화유산” 사업의 시작과 함께 특히 분명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위해 몇 가지 방법론적 변화와 수정이 요구되었다. 이 사업은 수공업, 관광, 영토 관리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영토 관리에서는, 당시 상황에 따라 지역 조사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했다. 이웃 공동체 두 곳, 즉 라 어바나(La Urbana)와 푸에블로 누에보(Pueblo Nuevo)에서는 2018년 홍수가 발생해 공동체와 작물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지역 식량이 부족해지자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전통 음식 체계에 관한 연구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두 명의 젊은 지도자들(남녀 각 한 명)이 전통 씨앗과 요리법은 물론 피아로아족의 관습에 통합될 수 있는 현대의 농업 생태적 기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역의 영양

과 소비를 위한 역할 수행 외에도 이 연구 과정의 결과는 이들 공동체가 개발하고 있는 관광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 작물, 전통 요리법, 건강과 관련해 피아로아인의 음식에 대한 시각이 관광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피아로아 공동체의 산 루이 데 자마(San Luis de Zama)는 이들이 상품화하는 수공예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이러한 재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무형문화와 관련된 지역 조사 지원은 이러한 공동체들이 자신의 웰빙을 증진할 가능성과 관련 있다. 이미 적용된 조사 방법에 이어, 수집된 무형유산정보 일부는 현재 상황에 유용하고 관련 있도록 피아로아 주민들에 의해 되살려지고 수정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영국 문화원과 에트놀라노의 팀원들이 여행할 수 없고, 이 지역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지역연구자들 및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대화할 수 없게 되어서 이러한 과정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우리는 신속하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개발하고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찾아야 했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과 업무 수행 방식들 덕분에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원거리에서 지역연구자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현장 조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의 새로운 단계에서 응용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연구자들과 일을 다시 시작했다.

## 2) 다리 놓기(연결고리 만들기)

무형유산과 관련해 에트놀라노 재단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피아로아와 무형유산 관련 비토착민 행위자, 기관,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상호관계와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 다리를 놓는 것이었다. 재단 설립 이후 에트놀라노는 사람들의 웰빙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간 지식, 경험, 신념을 교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강력한 문화간 초점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이러한 다리는 토지권 인식, 피아로아의 자체 교육 시스템 수립, 토착 지식을 인정하는 보건 모델 구현으로 이어졌다. 문화간 과정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다리 잇기 비유의 의도는 “두 세계의 최고”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양방향 프로세스'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코로나19 상황의 한복판에서 코로나를 예방하고 대응할 방법을 찾기 위해 다리가 설립될 수 있었던 방법 중 한 가지는 토착민 공동체들과 보건국 사이의 관계였다. 이것의 두 번째 예시는 관광 활동에 초점을 둔 신청 과정과 성공적인 수상이었다. 에트놀라노는 피아로아족의 라 어바나와 푸에블로 누에보 공동체들과 협력하여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NGO로서 에트놀라노의 역할은 힘든 서류작업을 포함해 신청 준비에 도움을 주는 것뿐 것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과 관광 분야 및 시장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민간 관

광업체와의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수상을 위한 요청은 콜롬비아 생물다양성 보존에 초점을 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프로그램 'Colombia Riqueza Natural'과 콜롬비아 상공부의 지원을 받고 USAID의 후원을 받는 'Colombia Productiva'가 수여하는 자연과 문화관광에 초점을 맞췄다. 2020년 7월, 관광에 흥미를 가졌던 피아로아 지도자들 중 일부가 에트놀라노 재단에 연락해 신청 과정에서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다. 며칠간의 협업 이후, 재단과 민간 관광회사의 파트너십 체결이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서비스와 역량 개발 외에도, 이 프로세스는 자연과 문화관광을 위해 필요한 기반으로 무형유산의 강력한 요소를 포함할 것이다. 한 편으로, 자연과 문화관광 이니셔티브의 개발은 피아로아 주민들이 수 세대를 거쳐 사용한 전통적인 자원관리체계의 적용을 장려한다. 여기에는 생태계의 주기를 존중하면서 관광 활동을 정의하기 위해 생태학적 달력을 엄격한 방식으로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지역 음식에 초점을 맞춘 생태 달력의 개발은 관광객의 소비를 위한 음식에 대해 알리기 위해 중요할 것이다. 피아로아식 천연자원관리의 엄격한 적용 외에도, 에트놀라노는 환경 전문가, 토착 재료와 비 토착 재료를 섞은 혁신적인 조리법과 음식을 탐험할 요리사, 경영대학교(EAN)와 환경적 측면을 지원할 Riqueza Natural 등 외부 행위자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도 지원할 것이다. 사업계획의 개발, 예를 들어, 코로나19 방역 프로토콜의 이행은 서로 다른 논리와 세계들 사이의 만남을 가져온다. 여기에서 다리 놓기는 향후 피아로아 주민들에 의해 제공될 관광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모든 세계로부터의 최선”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자연과 문화관광 이니셔티브의 개발은 피아로아 주민과 관광객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문화 해석”의 강력한 과정을 포함할 것이다. 이것은 피아로아 주민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무형유산의 요소들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문화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길 원하는 요소들을) 찾는 중요한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일단 확인되면, 에트놀라노 재단은 그러한 문화적 요소들이 비 토착민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관광객들과 공유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을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호텔과 산책로 곳곳에 관광객들에게 글이나 그림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표시와 같은 단순한 도구들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는 또한 녹음과 영상 등의 디지털 도구들도 포함될 수 있다. 수단과 방법 외에도, 비 토착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자체도 해석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 사례 제시, 비유의 사용이 포함될 수 있다. 에트놀라노의 팀은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서로 다른 세계관, 논리와 문화 집단 사이에 다리 잇기를 장려하기 위해, 같은 공동체가 그러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공유할 것이다.

### 3) 피아로아족의 자체 교육 과정 지원

에트놀라노 재단은 피아로아족의 자체적 정규 및 비정규 교육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팬데믹 동안 비정규 과정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규 교육을 어떻게 계속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우선, 에트놀라노는 물질문화와 수공예품 생산 관련 지식의 전수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 농업 생태학적 연구 결과를 학교에 적용하는 것도 지원하는 등 여러 사업과 과정을 통해 피아로아족의 비정규 교육을 지원해왔다.

두 번째로, 에트놀라노는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과 언어 강화 과정의 개발을 함께하면서 피아로아족의 정규 교육을 지원했다. 정규 및 비정규 교육환경에서, 피아로아족의 교육은 피아로아인들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 마타벤 우림에 대해 말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재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 무형문화 요소들의 전수를 장려한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있다. 현재 영국 문화원이 지원하는 위성 인터넷 설치 과정은 이러한 교육 프로세스를 위해 가져올 가능성들에 대해 새로운 힌트를 제공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역의 무형유산 연구자들을 계속 지원하고 무형유산을 둘러싼 다른 집단 간 상호문화적 교류를 조직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연결성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오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져올 위험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따라서 에트놀라노의 역할 중 하나는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문화적 과정들이 영향받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을 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교육에 관해 에트놀라노가 수행한 또 다른 역할은 팬데믹 동안 토착민 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비 토착민들에게 피아로아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6월 한 달간, 32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미술품 경매를 조직하고 코로나19의 위험에 처한 토착민 공동체들에 수익금의 70%를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Pie Indigena’ 이니셔티브 개발을 시작했다. 방역 키트 배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피아로아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예술가들과 유익한 전화/웨비나를 조직했다. 이것은 수도 보고타에 사는 사람들이 피아로아 사람들에 대해 배우는 “외부” 교육 과정이 되었다.

또한, 키트에 포함할 요소들을 논의할 때, 일반적인 키트를 보내는 것보다 공동체의 필요와 이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방역 키트는 마스크, 소독용 알코올, 체온계, 수술용 장갑 그리고 언어와 내용 면에서 문화적으로 각색한 코로나19 예방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정보제공

툴킷이 포함되었다. ‘자발적 격리’ 키트에는 공동체가 도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피하도록 낚싯바늘, 마체테, 비누와 소금 등의 아이템이 포함되었다. ‘캔 음식’을 보내는 대신 이러한 아이템들은 지역의 식량 생산 체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보건 공동체 구성원들에 전달된 방역 통에 코로나19 툴킷이 포함되었지만, 우리는 교육과 관련해 몇 가지 도전과제를 발견했다. 이들 중 일부는 건강에 관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코로나에 관해 피아로아 사람들이 가진 신념 체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토착민 공동체에 존재하지 않고 비 토착민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질병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다시 현장 연구를 시작했을 때, 방역 지침들을 강요하지 않고, 대신 실내나 공동체 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부터 시작해 방법론들을 수정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 코로나19 팬데믹과 세트 놀라 노의 고찰

이번 팬데믹은 특히 사람과 공동체의 웰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무형유산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팀 내에서 새로운 고찰을 불러왔다. 이것은 또한 피아로아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여러 측면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가 공동체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리고 정부에 의해 강요된 프로토콜 대신 어떻게 이를 관리할 것인지 결정함으로써 토착민 집단들이 자신의 거버넌스 체계와 영토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상상해 보았다. 코로나19가 콜롬비아에 도착했을 때, 일부 토착민 집단은 자신들의 영토를 닫고 (보건부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외부의 누구도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로, ‘집단’의 중요성이다. 피아로아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이 구성원을 격리하는 대신 돌보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에서 강한 “집단” 의식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도시의 센터들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통 의료관습과 자체적인 식량 시스템을 신속하게 가동시켰다. 이것은 다른 문화에서 들어온 질병에 맞선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네 번째로, 피아로아 사람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농장, 특히 작물 재배지로 이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미래에는, 에트놀라노 재단이 전통 의학을 어떻게 신속하게 지원할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형유산의 베일을 벗기기 위해 토착민 공동체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만든 3가지 요소들이 있다. 바로, 지역의 무형유산 연구 지원, 다리 놓기와 피아로아족의 자체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요

소들을 발견함으로써 전통적인 집단의 생존을 위한 관습, 지식과 기술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에트놀라노 재단에서 우리는 토착민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경청을 우선시하는 장기적이고 느린 프로세스를 목표로 삼았다. 비록 우리가 여러 성과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배울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배움과 공유를 위해 열려 있고, 자신들의 웰빙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웰빙을 의식해 책임 있는 생태계 관리를 수용한 삶의 방식을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해 온 집단들로부터 배우는 것에 헌신하는 전 세계적 운동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

피아로아족과 그들이 한 일, 조직과 문화, 우리와 공유한 것들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 그들의 경험과 힘, 강한 조직은 매일 우리의 일에 영감을 주었다.